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장목적	일본 지방정부의 시민주도형 평생교육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성공요인,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및 관련 재정확보 방안 연구를 통한 전문성 확보			
출장지역	일본(가케가와, 요코하마, 도시마구(도쿄))			
출장기간	2024. 5. 27.(월) ~ 5. 30.(목) [3박4일]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직위)	성명	출장경비 (단위 :원)
	진홍원	사무처장	조○수	1,618,400
주요 활동내용	일자	주요활동내용		방문기관 (장소)
	5.27.(월)	일본이동		—
	5.28.(화)	기관방문		가케가와시청 가케가와시의회
		현장방문		성북 마을만들기 협의회
	5.29.(수)	기관방문		도시마구청 요코하마시청
	5.30.(목)	한국이동		—
국외출장 결과	<p>일본은 한국보다 인구 노령화의 시기가 빠른 나라이며,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시작을 과거로부터 추진해 왔음.</p> <p>한국 또한 최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p> <p>인천 또한 시 산하 기관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육 대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p>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일본에서 평생교육으로 유명한 가케가와시를 방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함.

첫째, 1979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한 가케가와시의 평생교육은 지자체와 시민이 동반하여 추진하는 형태를 보임. 평생교육의 주체를 행정에서 시민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행정과 시민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동하는 것을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있음.

둘째, 가케가와시민은 자신의 도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희생정신과 애착심이 높아 행정으로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함.

신칸센역 유치를 위해 모금한 30억엔과 가케가와성 재건축을 위한 모금액 등은 시민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평생교육 우수 도시인 현재의 가케가와시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임.

반면, 현재 한국 그리고 인천의 평생교육은 시민주도가 아닌 정부(지자체) 주도이며, 수요보다는 공급에 따른 교육체제로 진행되고 있기에 일본의 평생교육과 큰 차이를 가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공급자의 측면에서 제공이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고 관리에 중점을 두기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